

小兒醫方の 板本比較 및 篇第 考察

이가은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AUiBang(小兒醫方-pediatrics). Through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oAUiBang(小兒醫方-pediatrics) can be organiz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with the issue of first edition and authorship, SoAUiBang(小兒醫方-pediatrics) was written by MongAm(夢菴) ChaeGyuHeon(崔奎憲), and it is definite that it was first published in 1912 at GwangHakSeoPo(廣學書舖)

Secondly, the fact that SoAUiBang(小兒醫方-pediatrics) shows clear distinction in various aspects from previous pediatrics books has great academic value.

As such, SoAUiBang(小兒醫方-pediatrics) maintained the form of Oriental Medicine and at the same time, took in the changes of the times.

I. 서 론

한의학에서 小兒科는 매우 일찍부터 독립된 분과로 여겨져 왔다. 唐대 최초로 小兒科 전문 의생을 양성한 기록이 있으며, 『顛顛經』은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로서 현존하는 것은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고 당말송초에 저작된 것이다¹⁾. 이후 송대에 이르러서는 錢乙이 『小兒藥證直訣』을 지어, 이후의 소아과 영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여러 소아과 전문서적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保童秘要』²⁾와 같은 서적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 향약집성방에 여러곳

1) 김덕곤 외, 동의소아과학 p.21

2) 고려시대에 출판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망실된 서적으로 의방류취에 인용되어 그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널리 읽힌 소아과 서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종 23년 간행된 향약구급방에서 소아에 관한 항목이 따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 조선의 의서들은 모두 소아문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소아과는 독립된 분과로 여겨져 왔는데, 소아과의 이론을 정립했다고 평가되는 소아약증직결 이후 소아과의 영역은 대부분 初生病과 驚風, 麻疹, 痘瘡 등 小兒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 질병 위주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적인 『東醫寶鑑』의 소아문을 보면 그 내용이 소아병난치, 장부생성, 초생해독법으로 시작하여 경풍, 감병, 두창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중기 간행된 소아과 서적인 『及幼方』에서는 권1의 「東方六氣論」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풍토가 다르므로 우리의 풍토에 맞는 치법을 구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2부터 권12까지는 소아가 걸리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후 출판된 서적들은 소아과 영역 중에서도 두창과 마진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진서로는 『壬申疹疫方』, 『麻疹方』, 『麻科會通』 등이 있으며 두창서로는 『痘瘡經驗方』, 『龍山療痘方』 등을 들 수 있다.

『小兒醫方』은 1912년에 출판된 서적으로, 구한말 서양의학의 수입과 중두법의 시행, 그리고 의생제도 등으로 변화하던 시대에 출판된 책이다. 소아의방은 한의학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이전의 소아과 전문 서적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소아의방에서는 기존의 소아과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소아에게만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질병들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소아와 성인에서 모두 보이는 상습적인 질환과 소아과만의 특유한 질환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인 소아과 서적의 모습을 갖춘 소아과 전문서이다. 이는 당시 자칫 한의학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는 시대 상황에서도 새로이 전문 영역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려는 저자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서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아의방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아의방의 저자인 최규헌과 저술 배경에 대해 밝히고 둘째, 역대 판본과 간행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정리하며 셋째, 편제를 통해 살펴본 소아과 영역의 변천과 소아의방에서 보이는 소아 치료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근대 한의학의 변화하는 모습과 서양의학의 도입에 대응하는 전통의학의 새로운 대처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본 론

1. 소아의방의 저자 최규헌

소아의방의 저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학대계에 실려 있는 소아의방의 판본은 1936년 출판된 『夢菴遺稿 小兒醫方』으로, 최규현의 사후 이기영, 이명철 두 사람이 언해하여 출판한 판본이다. 이것이 마치 초간본인 양 소개되어 있어, 이기영과 이명철이 저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또 이후 행림서원에서 나온 판본 중, 소아의방을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다산의 저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아의방은 1912년 광학서포에서 출판된 것으로 당시 소아명으로 알려졌던 몽암 최규현선생의 저작이다.

저자 최규현은 대한제국 말기 고종황제 재위 시에 전의로서, 소아 치료에 탁월하였다고 알려진다. 19세 때인 1864년 甲子式年試에 의과로 등과하였고 그 뒤 1892년 太醫院典醫로서 삼등군수³⁾를 역임하였다.⁴⁾ 최규현의 사망 연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1936년 몽암유고 소아의방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된 것을 보아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자는 누대에 걸친 의관 가문 출신으로, 부친과 조부 및 형제가 의과에 합격한 기록이 있다⁵⁾.

소아의방의 책 표지에는 壬子榴夏 小兒醫方 金奭準著라는 글이 쓰여 있다. 김석준은 조선 후기의 역관출신 시인이자 서도가로, 같은 중인 출신이자 잡과에 합격하였으므로 둘 사이의 친분관계를 추측할 볼 수 있다. 김석준의 저서 《홍약루속회인시록 紅藥樓續懷人詩錄》에는 최규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회인시가 실려 있다.

久矣是高標 如秋山淨明 幽懷寫健筆 罕言溫有情 城東隱於葑 誰識許道寧

문장중에 성동에 은거한다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최규현의 말년 동대문 밖에서 거주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소아의방의 판본과 간행 시기에 대한 고찰

소아의방은 출판된지 100년도 안된 비교적 근대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판본과 저자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12년 초간본을 찾아 소개하는 한편,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좀 더 뒤에 나온 판본들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1) 1912년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

3) 삼등은 평안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평양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4) 안상우. 고의서산책166 소아의방, 민족의학, 2003.7.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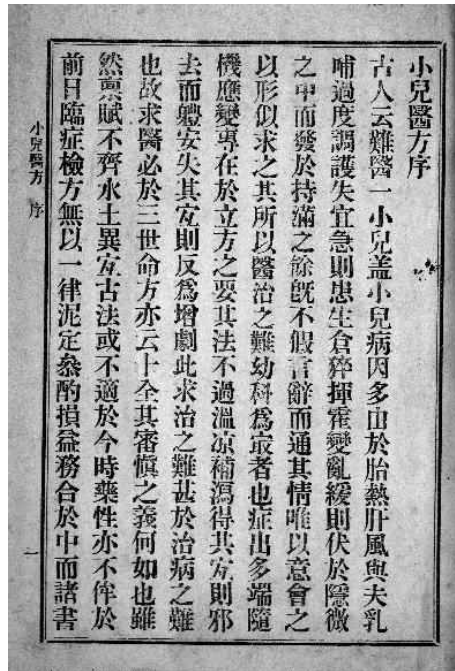
5) 의과선생안

夢菴 崔奎憲은 高宗 재위 말년에 太醫院 典醫로서 삼등군수를 역임하였다. 1912년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에는 저자의 序文과 역시 태의원 전의였던 密陽 朴準承⁶⁾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崔奎憲선생의 序文을 보면 서문을 쓴 시기를 ‘明治四十五年 壬子仲春 夢菴居士崔奎憲書’라고 쓰고 있고, 책 마지막장의 발행 연도는 ‘大正元年八月三日發行’이라 되어 있다. 明治 45년과 ‘大正 1년은 1912년 같은 해로 7월30일자로 연호가 바뀐다. 따라서 서문이 지어진 시기와 책이 발행된 시기는 불과 몇 달 차이가 나지 않는 것⁷⁾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이 저자의 원본에 가까운 초간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판본은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定價金八拾錢으로 가격이 붙어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을 보면 그다지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현재 1936년본이 초간본으로 잘못 알려진 까닭은 아무래도 김두종의 기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韓國醫學史에서 『小兒醫方』에 대하여 ‘…… 호는 夢菴인데, 그의 遺稿 『小兒醫方』은 李基榮, 李命七에 의하여 1936년 6월에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 8)’라고 소개하였다. 이것은 초간본과 1943년 行림서원에서 출판된 판본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夢菴遺稿 小兒醫方』만을 토대로 쓴 내용인 것으로 짐작된다. 行림서원 발행본에도 서문과 발문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았다면 1936년 처음 간행되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醫學史가 최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의학통사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책의 기록이 후대 『小兒醫方』의 간행연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小兒醫方』 초간본의 특징은 전문이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혹 약재 이름에 우리말 주석을 달아 놓은 것 이외에는, 醫論과 病症, 治方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이 국한문 혼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달리 초간본은 순한문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차가

그림 3. 1912년 광학서포 발행본 小兒醫方 서문



6) 박준승은 발문에서 崔奎憲을 ‘吾友 崔夢菴’이라 불렀으며, 그 역시 전의 출신으로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짐작케 한다.
 7) 1912년은 명치 45년이자 대정원년으로,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한 해이다. 증춘은 음력 2월에 해당하므로 발행일이 양력이라고 생각할 때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김두종, 韓國醫學史, 탐구당, 1981, 467쪽

앞에 수록되어있기는 하나, 본문 중에는 내용과 제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본문 앞머리 단어에 □표시를 하여 제목으로 삼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를테면 ‘手軟者筋縮不能舒伸宜’라는 식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자 최규현의 원고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본에서는 출판할 때 재편집과 교정, 증보, 교열 등 가공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2) 1936년 李基榮, 李命七이 언해하여 活文社에서 출판⁹⁾한 『夢菴遺稿 小兒醫方』

『夢菴遺稿 小兒醫方』은 韓國醫學大系(34권)에 수록되어 현재 널리 알려진 판본으로, 흔히 초간본으로 잘못 알려진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1912년 출판된 초간본을 언해한 것으로,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없다.

이 책은 본문과 제목이 구별되지 않던 초간본과는 달리, 따로 제목을 뽑아 본문과 분리하였다. 표 1은 소아의방의 세 가지 판본의 목차를 비교한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별되는 것만 뽑아서 열거한 것이다. 목차상 주요 내용의 편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夢菴遺稿 小兒醫方』에서는 병명 뒤에 症이라는 글자를 일일이 붙인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본문과 제목을 구별하기 위해 역자가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목을 고치거나 빼는 것은 있어도 본문은 차이가 없고 순서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 판본에는 초판본에 있던 서문과 발문이 빠져 있고, ‘修輯譯出者 李基榮 李命七 識’이라는 序文이 붙어 있다. 김두중은 초간본을 보지 못한 채 이 판본만을 가지고 夢菴 사후에 남겨진 처방과 기록들을 李基榮, 李命七이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사실과는 다르다. 이는 이후의 의과학 서적에서 소아의방의 출판연대와 저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본은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그 내용과 편제가 1912년판 『小兒醫方』과 일치하므로 새로 엮은 책이라 보기 어렵고, 한문으로 된 『小兒醫方』 초간본을 언해한 번역본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 판본에는 유난히 誤字와 脫字가 많은데, 일부 판본에는 正誤表가 실려 있다. 活文社본 초판 출간 후 교정을 봐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正誤表에 실리지 않은 오자도 상당수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세 가지 판본 중에서 가장 조잡하며 정밀하지 못하다. 또 인쇄 상태도 불량해서 일제강점기 말기의 열악한 출판여건과 당시 풍토를 엿볼 수 있다.

9) 김신근, 韓國醫學大系, 34권 해제

표 1. 『小兒醫方』 판본의 목차 비교

小兒醫方	夢菴遺稿 小兒醫方	新譯註解 小兒醫方
小兒調護法	小兒調護法	小兒調護法
察色	察色法	察色法
脈法	脈法	脈法
初生解毒	-	-
初生諸症	初生諸症	初生諸症
∴	∴	∴
夜啼	夜啼症	夜啼症
胎驚癇風	胎驚癇風	胎驚癇風
肝氣諸症	肝氣諸症	肝氣諸症
急驚	急驚症	急驚
慢驚	慢驚症	慢驚
癇	癇症	癇
瘵瘵	瘵瘵症	瘵瘵
項軟	項軟症	項軟
身軟	身軟症	身軟
筋骨痿軟	筋骨痿軟症	筋骨痿軟
手軟	手軟症	手軟
∴	∴	∴
霍亂	霍亂乾濕症	霍亂
∴	∴	∴
大便不通	大便	大便不通
小便不通	小便	小便
∴	∴	∴
蛔蟲	蛔蟲	蛔蟲
寸蟲	寸白蟲	寸白蟲
∴	∴	∴
皮附癢疹癰疹麻疹	皮	皮
手	手	手
足附膝脚	足	足
∴	∴	∴
解毒	解百藥百物毒	諸中毒
附錄 丸藥	附錄	附錄

3) 1943년 杏林書院에서 출판한 『新譯註解 小兒醫方』

현재 가장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으로, ‘新譯註解’라는 부제에서 보여주듯이 『小兒醫方』을 새로 해석한 것이 특징이나, 註釋이 달려 있지 않고 초간본과 비교하여도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록된 것이 없다. 이 책은 李基榮, 李命七의 언해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초간본을 참조하여 출판한 것이다. 1936년 언해본이 저본이라는 것은, 표 1에서 보듯 목차가 거의 일치하는 점, 언해본에서 비롯된 번역투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표2는 본문 중 같은 구절의 비교 예이다.

표 2. 小兒醫方 外感諸症門의 각 판본별 본문 비교

比較 板本	對比 文句
(初刊本)小兒醫方	感冒風寒身熱鼻塞無汗或挾滯腹滿宜
夢庵遺稿 小兒醫方	感冒風寒은 身熱鼻塞하고 汗氣가 無하며 或挾滯하야 腹滿한 자는 宜用左記方藥이니라
新譯註解 小兒醫方	風寒에 感冒되어 身熱·鼻塞·無汗等症을 呈하거나 或挾滯로 腹滿한 者에게는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또한 이 판본이 비록 1936년 판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1912년 『小兒醫方』 초간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이것은 1936년 판본에 보이는 많은 오자와 탈자 등이 수정되어 있는 것과 1936년판에 빠져 있는 崔奎憲의 序文과 朴準承의 跋文이 다시 삽입된 것을 보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고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新譯註解 小兒醫方』은 1936년 언해본을 기본으로 하고 1912년판을 참조하여, 문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오자, 탈자를 수정해서 출판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번역과 편집 형태인데, 지금까지 없던 소제목을 달아 본문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목, 의론, 병증, 처방을 나누어 독자로 하여금 보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책의 가장 마지막에는 附錄 難字釋義가 수록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글자만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기에도 비교적 평이한 勻, 尢, 肝 등의 글자까지도 음과 뜻을 실어 놓았다. 이는 후대로 오면서 소아의방의 독자층이 넓어지면서 학습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방색인도 덧붙여져 있는데 이러한 점은 『小兒醫方』이 보다 대중적인 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杏林書院에서 출판된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이 책은 판본상 앞에서 소개한 『新譯註解 小兒醫方』과 일치하고 단지 제목만 바뀐 책으로, 초기에 新譯註解 小兒醫方이라는 이름으로 펴내다가 중간에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장에 ‘夢菴先生의 醫學的 造詣는 그의 畏友오 我東의 哲人 丁茶山先生의 陶冶이었음으로 本書의 編輯은 主로 茶山先生의 指導에서 完成된 것이다¹⁰⁾’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생몰연대와 활동시기를 감안할 때 글자 그대로 믿기 힘들다. 다산은 저자 최규현이 출생하기 10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직접 지도를 받기에 불가능하며 더욱이 畏友란 호칭은 터무니없는 표현일 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茶山이 麻科會通 등 소아과질환의 대표적인 마진과 두창치료에 있어서 당대 대표적인

10) 崔奎憲,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행림서원, 1954, 1쪽

전문의학자였으며 많은 의학저술을 남긴 사실로 미루어 夢庵이 다산의 제자나 서적을 통해 私熟했을 가능성만 점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崔奎憲과 정약용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다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丁茶山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앞으로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소아의방의 편제 고찰

『小兒醫方』¹¹⁾은 모두 99항목으로 구성된 책이다. 목차 아래로 간략한 醫論과 그에 따른 처방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많지 않은 내용의 책이라 따로 목차에 대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내용을 토대로 표2와 같이 전·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 『小兒醫方』 본문 구성상의 특징

전반부	小兒調護法~寸蟲	소아조호법, 초생병, 경풍 등 기존의 小兒科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수록
후반부	氣~解毒	『東醫寶鑑』의 목차를 빌려, 일상적인 질병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소아에게 맞게 편집 수록

1) 전반부

전반부는 총 60항목으로, 기존의 小兒科 영역이었던 小兒調護法, 初生病, 驚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후반부

후반부는 총 38 항목으로, 기존의 小兒科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질병을 『東醫寶鑑』 순서를 빌어 서술하였다. 이는 『小兒醫方』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소아의 관점에서 소아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小兒醫方』 한 권 안에 실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표5는 『小兒醫方』 후반부와 『東醫寶鑑』 內景篇~雜病篇의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목차의 제목과 순서가 동의보감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표 5 소아의방 전반부 목차

小兒調護法
 察色法
 脈法
 初生諸症
 變蒸
 魘病
 客中中惡
 天吊
 內釣腹痛
 盤腹痛
 夜啼症
 霍亂乾濕症
 諸吐
 諸瀉
 噎膈
 內傷諸症
 諸積

11) 이후의 연구는 모두 1912년 초간본 『小兒醫方』을 기준으로 한다.

있다. 소아의방이 오직 동의보감 소아문에 해당하는 것만 실은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의 전체 제목에서 편제를 따왔다는 것은 최규현이 소아과의 영역을 소아에게 국한되는 질병만이 아닌 소아와 성인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질환까지 넓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최규현은 기존의 제한적인 소아과 영역을 넓혀, 소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종합적으로 소아과 영역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표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小兒醫方』의 내용 중에는 소제목으로 『東醫寶鑑』의 처방설명을 따온 것도 종종 보인다. 이는 『小兒醫方』이 복잡한 이론적인 설명 보다는 임상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상을 더 중요시한 실용서임을 보여준다.

諸痢
大便
小便
遺溺
脫肛
痔
疝
淋
小兒傷寒
外感諸症
暑症
濕症
咳嗽
喘症
哮症
咳逆
蛔蟲
寸白蟲

4. 소아의방의 특징적 학술 내용

1) 痘瘡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하였다.

두창은 전통적인 소아 질병중 하나로, 소아과 4대 질병인 痘瘡, 麻疹, 驚風, 疳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질병이었다.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소아문 내용중 두창에 대한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원인과 예방법에서부터 후유증까지 매우 자세하다. 이는 두창이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며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역대 의학자들의 연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아의방에서는 두창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실려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저자의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자는 서문의 마지막에 ‘오직 두창의 치료방은 현재 중두신법이 있으니 불필요하게 덧붙이지 않는다¹²⁾’ 고 밝히고 있다.

중두신법이란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우두종법을 의미한다. 우두법은 고종 17년 지식영이 수호사의 수원으로 일본에 가서 배워 온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당시에는 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인두법이 먼저 들어와 민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와 구분하여 새로운 중두법이라는 뜻으로 중두신법이라 한 것이다.

인두법은 이종인의 시종통편에서 두창의 치료법과 함께 부록으로 중두법(인두법)을 실었다. 우두법

12) 唯痘方今有種痘新法茲不贅焉

표 6. 『小兒醫方』 후반부와 『東醫寶鑑』의 목차 비교

小兒醫方 (全)	東醫寶鑑	
氣 神 血 夢 聲 音 言 語 津 液 痰	身 形 精 氣 神 血 夢 聲 音 言 語 津 液 痰 飲 ∴	內景篇
頭 面 眼 耳 鼻 口 舌 唇 牙 齒 咽 喉 頸 項 背 胸 乳 腹 腰 脇 皮 手 足	頭 面 眼 耳 鼻 口 舌 牙 齒 咽 喉 頸 項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 骨 手 足 毛 髮 前 陰 後 陰 ∴	外形篇
浮 腫 脹 滿 消 渴 黃 疸 瘡 癰 疽 諸 瘡 諸 傷	∴ 浮 腫 脹 滿 消 渴 黃 疸 瘡 癰 疽 疫 癘 邪 祟 癰 疽(上) 癰 疽(下) 諸 瘡 諸 傷	雜病篇

解毒	解毒 救急 怪疾 雜方	
----	----------------------	--

도 초기 수용시에 한의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김인제의 우두신편에서는 우두집증을 팔뚝에 하는 이유를 비는 양경혈이 속하여 장부의 열을 주관하므로 이곳에 집중하면 양경혈맥을 따라 장부로 들어 간다는 지극히 경락설에 따른 설명으로 풀어 놓았다.¹³⁾ 이것은 새로 보급된 서양의 우두 집증을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이해하려고 했던 흔적이다.

하지만 이후 1899년 의학교와 종두의강습소가 함께 생겨나 본격적인 서양의학 전공자가 생기면서, 우두법은 서양의 의학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아의방의 간행 시기인 1912년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우두법이 시행되는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소아의방과 같은 임상서에서 두창이 빠졌다는 것은 두창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한의학에서 수용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 주도권이 서양의학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소아병의 병인으로 七情을 제외하였다.

崔奎憲은 소아에게는 七情으로 인한 병이 없다고 생각했다. 『小兒醫方』의 氣門과 痰門을 『東醫寶鑑』과 비교해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다음은 소아의방 氣門의 醫論이다.

氣者生於腎 又生於穀 爲陽而主外 呼吸之根也 氣逸則滯而生痰 痰盛則氣愈結 故調氣必先豁痰

소아의방에서는 이 한 문장으로 氣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동의보감의 여러 문장을 따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자의 독특한 병인관이 나타난다. 몽암은 生痰의 원인을 氣逸則滯而生痰이라고 설명하였는데, 東醫寶鑑 氣門에서는 氣逸則滯와는 별도로 七氣에서 氣結則生痰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동의보감의 원문이다.

直指曰 人有七情 病生七氣 氣結則生痰 痰盛則氣愈結 故調氣必先豁痰

분명히 氣結의 원인을 몽암이 바꾸어 서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 氣門의 핵심 내용인 七氣, 九氣 항목이 『小兒醫方』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氣痛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飲食鬱痰만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¹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몇가지 예를 더 들자면 痰門에서는 痰病의 종류 중 칠정으로 인해 생기는 氣痰, 鬱痰 등의 조문이 소아의방에는 아예 없고, 咳嗽門에서도 氣嗽, 鬱嗽 등의 내용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崔奎憲은 소아의 병인에 있어서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13) 안상우. 고의서산책9 우두신편, 민족의학, 1999.8.30일자

14) 氣痛者因飲食鬱痰積聚結果氣上焦滯心胸痞痛此宜用左記方藥

자극과 사고활동으로 인한 질병이 별로 없다고 보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소아 처방의 기준을 만들었다.

『小兒醫方』의 처방은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용량을 조정하고 가감을 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처방중 어느 하나도 다른 책에서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 없어, 저자 자신의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른 경험방임을 드러내고 있다.

『小兒醫方』의 처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량을 조절한 것이다. 기존의 처방의 용량을 절반으로 한 것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약제에 따라 조정한 것이 많이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성인에게 쓰는 薑3棗2 대신 薑2棗2를 쓰도록 하였다. 이는 소아의 취약한 장부가 신열한 약제인 생강에 의해 손상받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특정 약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인보다도 용량을 늘렸는데 龍眼肉이나 黃芪 등의 補氣藥이 주로 증량되어 있다. 이 또한 소아가 아직 장부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인보다 보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인 기준의 처방을 소아에게 적용할 경우, 용량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III. 결 론

이상으로 살펴본 小兒醫方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판본과 저자상의 문제에서는, 『小兒醫方』은 夢菴 崔奎憲의 저작으로 1912년 廣學書舖에서 처음 출판되었음이 확실하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로, 초간본의 존재를 통해 본고에서는 소아의방의 저자와 간행 연대를 확실히 밝혔다. 이후 1936년 活文社에서 출판된 『夢菴遺稿 小兒醫方』은 대중적으로 언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1943년 杏林書院에서 출판된 『新譯註解 小兒醫方』은 현대적인 문투로 다시 해석하였는데, 소아의방이 대중서로서의 가진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杏林書院에서 출판된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이라는 책은 『新譯註解 小兒醫方』과 같은 책으로, 표지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것이다.

둘째, 학술적인 가치로는, 소아의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전의 소아과 서적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본서의 편제를 살펴보면 모두 99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부 60항목은 기존의 小兒科 영역이었던 小兒調護法, 初生病, 驚風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 38항목은 기존의 小兒科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질병을 소아에 맞게 『東醫寶鑑』 순서를 빌어 수

록하였다. 이는 최규헌이 소아의 모든 질병을 『小兒醫方』 한 권 안에 종합적으로 담으려 했음을 보여 준다. 편제를 동의보감에서 따오기는 했으나,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나 처방의 구성은 매우 독특하다. 정신 자극으로 오는 질병을 배제하고 처방의 약재용량을 소아에 맞게 조정한 것 등 소아과 전문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아의방에는 역대 소아과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였던 痘瘡이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당시 이미 우두법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서양 의학교와 의원이 생겨 중두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였기 때문에, 두창에 대해 한의학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아의방은 한의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틀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한된 소아과 영역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구성으로 종합적인 소아과 전문서로써 현대적인 모습과 유사한 소아과 영역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가진다.

IV. 참고문헌

- 崔奎憲, 小兒醫方, 京城: 廣學書舖, 1912.
 崔奎憲, 新譯註解 小兒醫方, 서울: 杏林書院, 1949.
 崔奎憲,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서울: 杏林書院, 1954.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4
 錢乙, 小兒藥證直訣, 醫聖堂, 서울, 2002
 趙廷俊, 及幼方, 여강출판사, 199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金信根, 韓國醫學大系, 서울: 여강출판사, 1988.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金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탐구당, 1982
 金斗鐘, 東서의학사대강, 탐구당, 198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자가출판, 1962.
 安相佑, 古醫書散策 166/小兒醫方, 민족의학, 1999년 8월 30일자, 2003.7.28일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수록, 동의소아과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3
 정규만, 동의소아과학, 행림출판, 1994

김덕곤 외, 동의소아과학, 도서출판 정담, 2002

황상익, 역사속의 학부 “의학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00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2000

조미숙, 조정준의 급유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